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역 소식 >

당초 3월에 예정 되어있던 팔레스타인 난민 센터 재오픈이 사정이 생겨 미뤄졌습니다. 예전 사용하던 건물 사용을 집주인과 잘 얘기하고 렌트비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다시 렌트비 비용으로 건물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재 오픈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생각해서 작은 장소를 찾다가 예전 사용하던 센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던 중에 다시 처음부터 장소를 찾게 되는 상황에 센터장인 니아매와 잠시 실망하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기도하며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군인 출신의 관장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재원 형제도 감사히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관계를 해온 관장이 자신이 새로운 도장을 열면서 재원 형제를 초청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성 보수적인 지역으로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던 아부 압달라 가정이 레바논의 비자 문제로 아부 압달라가 요르단에 방문했습니다. 막내딸 마지막 학기와 거주 비자 문제로 반드시 아부 압달라가 요르단에 와야 해서 추방당한 요르단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많은 기도를 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비밀 경찰에 불려가 모욕적인 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나와 지금 레바논 교회에서 비자 과정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가정 소식 >

저희 큰 아이 영조가 6월 졸업을 앞두고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벌써 저희 부부의 품을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의 다음 걸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기도 제목 >

1. 저희 상황과 재정에 맞는 와흐닷트 팔레스타인 난민 센터 장소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현지 체육관에서의 사역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아부 압달라의 레바논 비자 이슈가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대학 진학을 앞 둔 큰 아이 영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